

근로자의 대사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은숙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업무상 질병 중 심혈관질환은 유병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인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집합으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생물학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혈관질환 유병율과 사망률의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근로자의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소재하는 1개 전자제조업체 30세 이상 생산직 남자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7일부터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혈액 검사, 복부둘레 측정, 일반건강검진기록 열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8.2를 이용하여 서술통계와 t-test, χ^2 test,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NCEP-ATPⅢ(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PanelⅢ)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율은 10.5%이었다. 대사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대사위험군은 36.3%, 대사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는 67.7%이었다.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연봉을, 가족요인으로 가족력, 부모 교육수준, 가족의 지지를, 작업환경요인으로 주당 근로시간, 근무형태, 직무긴장,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소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건강행위 요인으로 흡연량(갑년), 일일 평균 음주량, 신체활동량, 식이섭취양상을 파악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사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동료의 지지($p<0.05$)와 신체활동량($p<0.01$)이었다. 대사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력($p<0.001$)과 식이섭취양상($p<0.1$)이었다. 대사위험요인 중 복부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력($p<0.1$)과 부모의 교육수준($p<0.05$)이었고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당 근로시간($p<0.05$), 음주량($p<0.1$), 식이섭취양상($p<0.1$)이었다. 고 중성지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가족력($p < 0.05$)과 상사의 지지($p < 0.1$)이었고, 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음에 대한 주관적 인식($p < 0.1$)이었다.

근로자의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대사위험요인의 군집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요인으로 가족 요인, 작업환경 요인, 건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대사증후군, 건강행위, 작업환경요인, 가족요인

† : 복부둘레는 아시아-태평양 비만지침의 기준을 적용함